

■ 특집 ■

노라 켈러의 『종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
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

신영헌

I. 머리말

2021년 2월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 교수는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여성들이었다는 취지의 논문을 기고함으로써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¹⁾ 국내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과 반박이 이어졌다. 사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강제적으로 동원된 종군위안부 체제는 2007년 7월 30일에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과와 기록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이미 그 존재 여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끝난 문제이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일본의 우익 세력과 일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082514).

- 1)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전쟁 중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2021년 3월)에 게재하였다. 위 논문에서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자발적 계약에 의해 매춘 행위를 한 여성들로, 일본 정부 측의 조직적이거나 강제적인 동원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친다.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 2) 차희정,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위안부 문제 형상화 방식-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중심으로」, 『문학들』 48권(2017), 44쪽.

정부는 틈만 나면 일본 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해 왔다. 일본의 전략은 종군위안부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원한 매춘 여성들로 몰아가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³⁾ 심지어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표방해 온 아베 신조 총리조차 2015년 8월 14일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문에서 “우리는 20세기에 전쟁 하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계속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성들의 마음을 항상 받아 안는 국가이고 싶습니다”라는 언사로 종군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⁴⁾ 그러나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다가도 막상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및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요청은 시종일관 묵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된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의 행간을 읽어보면 의외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제국주의 일본이라는 국가가 식민지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동원한 종군위안부라는 대단히 ‘특수한’ 사건을 “전쟁 하의 많은 여성들의 존엄과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라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치환하는 것이며, 이런 기조 하에서만 책임 인정과 사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위안부는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여성들에게

3) 조가빈, 『일본군 ‘위안부’제도 긍정과 부정의 정치적 쟁점: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1쪽.

4) 조가빈, 같은 논문, 1쪽.

행해진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아니며, 전쟁이 있는 곳이면 으레 있기 마련인 자발적 매춘 여성들이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사과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안부’ 피해여성들 간의 차이를 역사화하지 못하고, 따라서 각 피해자들의 특수한 위치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접근이다.⁵⁾ 왜냐하면 “군인들의 매춘을 당시 일본만큼 세세하고 ‘자상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한 예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종군위안부라는 대단히 특수한 전쟁범죄를 전시 매춘이라는 일반적 현상으로 몰아가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특수한’ 체험을 되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다. 1997년에 출간된 이후로 많은 비평적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어 온 소설 『종군위안부』(*Comfort Woman*)에 새삼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군위안부』는 이미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왔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제와 서술 기법 중 어느 하나에 치중해 온 게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종군위안부』의 독특한 서술기법과 위안부를 둘러싼 식민주의와 폭력의 주제를 유기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2.1 『종군위안부』에 대한 기존 연구

출간 이래로 『종군위안부』는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이 작품에 대해 나온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에 한정해도 100여 편에 이르며, 해외 연구자들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해외 동포 작가의 작품으로는 1995년에 나온 이창래의 『원어민』(*Native Speaker*)을

5)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384쪽.

6)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2002), 11쪽.

제외하면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아키코로 대표되는 중군위안부의 몸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식민담론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는 식민화된 여성의 몸이나 억압적 식민담론 자체에 비평적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의 몸에 대한 역사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다양한 이데올로기, 즉 인종차별주의적 제국주의, 식민주의, 남성중심적 내셔널리즘 등의 복합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구은숙의 연구⁷⁾와 “아키코의 몸은 한국의 식민지 근대사와 미국의 소수인종 이주사에서 젠더,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이 다층적으로 교차된 억압의 흔적을 담고 있다”는 변화영의 연구⁸⁾가 대표적이다. 둘째, ‘애도’ 또는 ‘기억’과 ‘죽음’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신분석학적 연구에서는 위안부 여성들의 트라우마의 성격과 의미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권택영은 “죽음이 충분한 애도를 받지 못하면 유령으로 출몰”하는데, 자신의 연구를 통해 “『중군위안부』의 서술 형식을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기억의 방식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과 재생의 순환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준다.⁹⁾ 조성란은 베카에게 남겨진 카세트테이프 “역사의 증언이자, 애도 받지 못한 중군 위안부들을 위한 애도이며, 애도를 계속하고 쓰이지 못한 역사를 복원해 달라는 후세를 향한 죽은 자의 요청”이라고 해석한다.¹⁰⁾ 셋째, 아키코와 인덕, 베카로 이어지는 여성적 연대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연구가 있다. 여성 연대와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여성주의적 연구로는, “일본군에서 브래들리 목사로 이어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식민화는 바로 조선과 해방 후 한국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적 억압과

7)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권 2호(2001), 472쪽.

8) 변화영,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 『비평문학』 51권(2014), 50쪽.

9)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중군 위안부」, 『호손과미국소설 연구』 12권 1호(2005), 222, 231쪽.

10) Sungran Cho, “The Power of Language: Trauma, Silence, and the Performative Speech Act: Reading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Speaking Subjectivity of the Moth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2003), p. 42.

착취를 상징한다”는 구은숙의 연구¹¹⁾와 두 개의 일인칭 서사 구조에 주목해서 『종군위안부』를 분석하는 이귀우의 연구¹²⁾가 여기에 속한다. 넷째,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혼종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산문학적인 연구가 있다. “향수와 민족주의 담론은 민족과 국가를 이미 전제되어 있는 본질적인 개념으로 상정함으로써 민족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억압한다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구재진의 연구¹³⁾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종군위안부』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의 재현에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들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비선형적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최혜실의 연구¹⁴⁾가 그 대표적 예이다.

기존의 방대한 연구 성과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키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일 경우, 그녀의 몸을 둘러싼 식민주의 관련 주제나 그녀의 트라우마와 이에 대한 애도라는 정신분석학적 논의가 중심에 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죽은 자들과 교감하는 아키코의 다성적 목소리와 서술방식에 대한 연구가 주요 논의 주제가 된다. 반면에 베카에게 초점을 맞출 경우, 이산문학적인 관점에서 베카의 정체성 찾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아키코와 베카 둘 다에 주목하는 연구의 경우, 아무래도 여성적 연대와 다중 정체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본 논문은 크게 보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종군위안부』는 독일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가 1993년 하와이 대학에서

11)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 479쪽.

12)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샴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권(2008).

13)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21권(2007), 401쪽.

14)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2002), 22-23쪽.

열린 중군위안부 출신 황금주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쓴 처녀작이다.¹⁵⁾ 총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중군위안부』는 아키코-브래들리-순효(Akiko-Bradly-Soonhyo)라는 여성과 그의 딸 베카(Beccah Bradly)라는 두 명의 서술자가 교대로 등장하면서 일인칭 시점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이다. 얼핏 보기에 아키코와 베카의 이야기는 별다른 접점이 없이 기계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서술된다. 예컨대 1장은 베카의 서술로 진행되며, 죽은 아버지의 5주기 제삿날에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는 엄마의 뜬금없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삼십년 동안이나 빌어 왔던 소원이 성취되어 엄마가 드디어 죽었다는 베카의 고백으로 마무리된다. 사건들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생략된 채로 들려지는 서술자의 고백은 독자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런데 2장에서는 1장과는 전혀 다른 시공간을 배경으로 또 다른 서술자인 아키코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식민지 조선의 가난한 시골 농부의 막내딸이던 순효(아키코)가 큰 언니의 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열 두 살의 나이로 일본군의 위안부로 팔려가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한 끝에 위안소에서 탈출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담담하게 서술된다. 그런데 이처럼 어머니와 딸이 교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의 독특한 서술 양식은 중군위안부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엄마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듣게 된 딸이 뒤늦게 엄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본 작품의 주제와 절묘하게 연결된다. 베카의 서술에서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평소에는 그렇게 자상하고 인자한 엄마가 “무아지경(trance)의 상태에 빠져들기”만 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서술한다.¹⁶⁾ 이를 한국의 토속 신앙에서는 ‘신내림’이라고 부른다. 결국 딸에게 붙은 살을 떼어내기 위해 딸의 학교를 찾아온 엄마는 한바탕 살풀이 소동을

15) Young-Oak Lee,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MELUS* 28-4(2003), p. 154.

16) Nora Okja Keller, *Comfort Woman* (New York: Penguin, 1997), p. 2. 이하 본문 인용 시에는 괄호 속에 페이지 수만 표기함.

별이고, 그런 엄마를 모셔 가라는 말을 들은 베카는 도망쳐 버리는데, 이것은 베카에게 깊은 죄의식으로 남게 된다.

베카의 서술이 이해하기 어려운 엄마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아키코의 서술은 왜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평범하지 않은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일본군 위안소에서의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아키코는 살아있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닌 삶을 살게 되었으며,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죽은 동료 종군위안부 인덕(Induk)의 혼령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샤먼이 되어,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키코가 인덕의 혼령을 받아들이는 근본적인 동기 역시 죄의식이다. 일본군에게 저항하다가 무참히 살해당한 뒤 “꼬챙이 꿰어져 길에 버려져 있는 인덕의 시체”(54)를 발견한 아키코와 다른 위안부 여성들은 그녀의 시신을 “강에 데려가 그녀의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54) 합당한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결국 “결국 군인들이 해 둔 대로 막대기에 끼워진 그녀의 나체를 그대로 두고 그곳을 떠”나고 만다(54). “순효의 신내림은 강요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된 순효의 자아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라는 진순희의 해석 역시 이를 뒷받침해 준다.¹⁷⁾ 이처럼 죄의식이라는 공통분모는 아키코의 서사와 베카의 서사를 하나로 묶어 준다. 위안소를 탈출한 아키코에게 나타난 인덕의 혼령은 아무도 자신들을 위해 제대로 된 곡이나 염을 해주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인덕의 혼령이 소개해 준 만신 아지매의 인도에 따라 평양의 선교원을 찾아간 아키코는 그곳에서 선교사 남편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러나 아키코의 트라우마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또 다른 트라우마의 시작일 뿐이었으며, 그녀에게 남은 위안이라고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순전히 아키코 자신의 아이인 베카뿐이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였지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으며,

17) 진순희,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2005), 344쪽.

아키코는 차마 딸에게 털어놓지 못한 자신의 트라우마를 카세트테이프에 남긴다. 카세트테이프에 남겨진 엄마의 유언을 들은 베카는 그제서야 엄마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테이프와 함께 남겨진 편지를 통해 ‘아키코-김순효-브래들리’라는 엄마의 진짜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다. 엄마가 ‘종군위안부’였다는 고백을 듣는 순간 베카가 위경련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고통을 통해 엄마의 트라우마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194). 베카는 혼령들과 어울리느라 어린 자신을 방치했다고 느낀 결과 삼십 년 동안이나 엄마가 죽기를 내심 빌어 왔던 것(13)이 오해였으며,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을 버려둔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가 신령들과 어울리는 동안만큼은 엄마에게 내가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보았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의 방식으로 항상 나를 함께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197)

엄마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사명으로 연결된다. “죽은 자들의 행렬을 인도해라. 네 빛의 밧줄로 출상을 인도해라. 너의 종을 울려 공기를 정화하고, 너의 노래로 우리를 씻어 다오”(197)라는 엄마의 유언에 따라 베카는 곡을 하고 엄마의 시신을 화장한 후 유해를 강물에 뿌린다. 이는 앞서 인덕의 혼령이 아키코에게 죽은 자에 대한 합당한 장례를 요구하던 장면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보면 아키코가 인덕을 포함한 죽은 자들에게 합당한 장례를 치르는 샤먼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베카가 죽은 엄마의 장례를 치러줌으로써 샤먼의 역할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귀우는 “아키코의 경우와 달리 베카는 강신체험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사제권을 계승하여 샤먼이 되는 세습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해석한다.¹⁸⁾

사실 『종군위안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다.

18)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198쪽.

그러다보니 작품이 주는 전체적인 교훈과 감동을 훼손하거나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한두 개의 주제를 완성도 있게 논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작품일수록 한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작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오독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는 『중군위안부』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내용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작품의 전체 메시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중군위안부』를 아키코-브래들리-순효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지닌 여성이 자신의 혼혈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보고, 어머니가 딸에게 대해 가지는 바람은 무엇이고, 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보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본 작품의 독특한 서술양식에 대한 이해를 우회해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중군위안부』가 “위안부들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들을 객관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비선형적 서술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최혜실의 주장¹⁹⁾이나, 『중군위안부』의 화자의 층위가 “다성적이고 분열적”인데, 이는 “아키코의 언어가 아키코라는 이름에 갇힌 두 여성의 것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라는 길혜민의 주장²⁰⁾처럼, 아키코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만의 목소리가 아니며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또한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결코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아키코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있는 문제이다. 서술방식과 주제의 긴밀한 상관관계에 주목하는 본 논문이 기존의 연구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작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제별로는 여러 가지로 세분되지만, 텍스트의 주요 사건에 대한 개별 해석에 있어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키코-순효의 몸에 가해진 일본 제국주의의

19)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22-23쪽.

20) 길혜민, 「일본군 위안부의 유령적 삶과 애도의 가능성: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3권(2017), 205쪽.

폭력과 이어지는 남편 브래들리 목사로 대표되는 미 제국주의의 폭력에 대한 논의에서는 비평적 쟁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다만 아키코가 베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억측과 오독이 난무하면서, 제대로 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동강 물에서 세례를 받는 시점에 강변의 흙을 입안에 넣고 맛을 보는 아키코의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엄마의 바람에 대해 베카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종군위안부』의 독특한 서술 방식이다.

2.2 『종군위안부』의 서술방식

켈러는 이영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여러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의 『음향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와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²¹⁾ 특히 어머니 아키코와 딸 베카가 각각의 이야기를 시간적 연결과 상관없이 교호적으로 진행하는 후자의 서술 방식은 네 명의 화자가 시간적 전후 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본인에게 중요한 심리적 현실을 보여주는 전자의 서술 방식과 상당히 닮아 있다. 사실 이는 포크너의 문학세계의 두드러진 특징이면서, 말하기(telling)보다는 보여주기(showing)를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모더니즘의 대표적 서사기법이기도 하다.²²⁾

21) Young-Oak Lee,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p. 157. 켈러와 모리슨의 문학세계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컨대 차희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회색적 모성이라는 관점에서 『종군위안부』의 성노예 아키코는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의 흑인노예 세스(Sethe)를 상기시킨다"(54)고 해석한다. 자신의 딸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죽는 게 더 낫다는 이유에서 딸을 살해하는 세스와 아키코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포크너의 대표작인 『음향과 분노』와 『종군위안부』의 가장 큰 유사점은 서술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22) 『미메시스』에서 에리히 아우얼바흐(Erich Auerbach)는 의식의 다인적 묘사(multi-personal representation of consciousness), 성층화된 시간(time strata), 외부 사건의 연속성의 붕괴, 서술 시점의 잦은 전환(shifting of the narrative viewpoint) 등을 모더니즘 소설의 특징으로 든다. Erich Auer-

이런 특징은 작품의 주인공인 베카가 어린 시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설명하는 첫 장에서부터 잘 드러난다. 소설의 첫 문장은 “아버지 5주년 기일에 엄마는 아버지를 죽였다고 고백했다”(2)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 당시 베카는 열 살 소녀였다. 베카는 “정상적일 때의 엄마를 자신이 사랑했”(3)으며 엄마도 자신을 사랑했건만, “신령들이 엄마를 부르러 오면 엄마는 나를 떠나 자신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4)는 말로 엄마를 소개한다. 신령들에게 사로잡힌 엄마가 때 마침 방문한 레노 아줌마의 아픈 과거를 지적하며 꾸짖고, 엄마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 본 레노 아줌마에 의해서 “일본과 한국에서 유명하신 점쟁이이자 영매”(11)이신 아키코 선생님이 되면서 “죽음에 대해, 그리고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들에 대해 엄마가 말해 주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위해 “빌어주고 조언을 해 주”며 살게 된 사정을 설명한다(10).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아빠를 죽였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은 베카는 “혼령들이 또 엄마를 사로잡으러 오고 있다”(12)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끝에 아무런 설명 없이 다음의 서술이 이어진다.

지금 나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검은머리 사이로 희끗희끗한 새치들을 본다. 눈을 가늘게 뜨자 눈 가장자리의 주름들이 깊어지며 엄마의 얼굴 같은 내 얼굴이 또렷해진다. 나는 생각한다. 거의 30년이 걸렸다. 거의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셈이다. 어린 시절 내질렀던 소원이 마침내 실현되었다. 엄마가 죽었다. (13)

1장 말미를 장식하는 위 문장에서 시간은 베카의 열 살 시절에서 엄마가 죽은 현재의 시점으로 훌쩍 건너뛴다. 현재 베카는 신문사의 부고 담당 기자로 일하는 중이다. 이처럼 이십 여 년의 세월을 훌쩍 넘나드는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이야말로 포크너의 전형적인 서술기법이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전통적 소설 형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bach, *Mimesis*, Willard R. Trask tr. (New Jersey: Princeton UP, 1968), pp. 536-538, p. 546.

아키코의 분열된 의식과 파편화된 기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이런 서술 기법은 『중군위안부』에서 특히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본 작품이 죽은 혼령들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아키코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연결해주는 영매 혹은 샤먼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군위안부』라는 작품 역시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 어머니들의 세계와 딸들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영매의 역할을 한다. 죽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선적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든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버지의 죽음—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끝나는 1장의 배치는 죽음이 본 작품의 주제 중 하나임을 절묘하게 보여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은 자는 기어코 산 자의 세계로 되돌아온다는 진리야말로 『중군위안부』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교훈이다.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를 중재하는 영매로서의 역할을 위해 『중군위안부』가 취하는 서술전략의 두 번째 특징은 언어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 전략이다. 소쉬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는 기표(음성이미지)와 기의(의미)의 결합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나무라는 말은 [나무]로 발음되는 기표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기의가 결합된 말이다. 그런데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따르면 [나무]라는 기표와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기의의 결합은 임의적인(arbitrary) 관계이다. 달리 말하면 나무를 [나무]로 불러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이는 동일한 기의에 대해 언어마다 다른 기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한국에서는 [나무]이지만, 영어에서는 [tri:]이며, 독일어에서는 [baum]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소쉬르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임의적이지만 일단 결합하고 나면 일대일의 안정적인 대응을 이룬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²³⁾ 그런데

23) 탈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에 오면 애초에 ‘임의적’이지만, 나중에는

『중군위안부』에서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라는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를 해체하는 듯한 교란적인 언어가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남편을 죽였다는 엄마의 고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의 뜻이 실제로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남편이 죽기를 소원하고 빌었다는 의미임을 알게 된다.

나는 그가 죽기를 바랐어. 매일 나는 죽어라, 죽어라!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지. 그리고 그에게 죽음의 눈길을 보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거야. (26-27)

엄마는 남편이 죽기를 빌었던 자신의 소원이 이뤄져서 남편이 죽은 것을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방식의 언어 사용은 일상적인 언어사용법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다. 이처럼 언어의 일상적인 의미를 파괴하는 의도적 왜곡은 작품의 첫 장면에서 국한되지 않는다. 2장은 베카의 엄마이자 『중군위안부』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키코가 화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그녀의 첫 마디는 “나의 아기는 내가 이미 죽은 후에 태어났다”(15)는 수수께끼 같은 선언이다. 상식적으로 이는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물론 난산 끝에 사망한 산모의 몸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구해내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두 살 되던 해 나는 살해당했다”(15)는 다음의 문장은 위와 같은 전체를 일축한다. 그런데 다시 이어지는 문장에서 “열 네 살 되던 해 나는 압록강에 내 얼굴을 비쳤다”(15)고 말하는 아키코의 서술은 독자를 당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안정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의 전체를 부정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의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차연’(differance)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차이(difference)와 연기(deferment)라는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지닌 데리다의 신조어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란 소쉬르가 말하는 기표와 기의의 일대일 대응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기표의 차이와 기의의 끝없는 연기로 이뤄지는 체계이다. 달리 말하면 다수의 기표와 하나의 기의가 결합하며, 따라서 기표는 기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표로 이어지면서 끝없는 기표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도중에 기의는 계속 연기된다. 위에서 예를 든 [나무]의 경우만 보더라도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 해살이 식물”이라는 기의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 가지, 식물 등의 또 다른 기표를 지시할 뿐이다.

열두 살에 살해당한 여자 아이가 어떻게 나이를 두 살 더 먹어서 열네 살 소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때 얼굴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15)는 이어지는 문장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독자는 아키코를 이미 죽어서 혼령이 된 존재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 “내 육신에서 영혼이 떠난 지 이십년이 지난 후에야 내 육신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15)는 서술에 이르면, 열두 살 때의 죽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했음을 알게 된다. 이렇게 보면, 열네 살 때 자신이 죽었음을 깨달은 것 또한 죽은 것이나 진배없는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를 비틀고 때로는 외연적인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내포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중군위안부』의 서술방식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물리적인 죽음보다 더 죽음이 가까운 ‘삶’도 있을 수 있다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

켈러가 『중군위안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자신의 목소리를 빼앗긴 중군위안부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일이다. 켈러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그리고 이후에는 남편인 브래들리(Richard Bradly)로 대표되는 미 제국주의와 기독교에 의해 자신의 목소리와 이름을 빼앗긴 아키코가 딸 베카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게 해 준다. 아키코와 베카가 교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중군위안부』는 대위법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위법이란 “독립성이 강한 둘 이상의 멜로디를 동시에 결합하는 작곡기법”을 뜻한다.²⁴⁾ 또한 이처럼 두 명의 주인공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서술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플래시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다. 플래시백이란 “작품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하는 삽입된 설화나 장면”을 가리킨다.²⁵⁾ 아키코의 서술은 열 두 살의 나이로 중군위안부로 끌려갔던 기억부터 딸 베카가

2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1269&cid=40942&categoryId=32992>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25)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507쪽.

태어난 지 한 살 되던 시점까지 이어지는 반면, 베카의 경우 이십년 전 아버지의 추도식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는 어머니의 뜬금없는 고백에서 시작해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통해 어머니의 숨겨진 기억과 외상적 과거의 진실을 알게 되는 현재의 시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중군위안부』에는 베카를 통해서 들려지는 아키코의 목소리라는 또 다른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서술 시점의 시차에 대해서 독자들이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아키코의 서술은 베카가 한 살 되는 시점까지 이어진 후 중단되지만, 베카의 서술을 통해 아키코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진다. 따라서 독자는 아키코의 서술이 소설 속 현재로부터 스무 해 전에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된다. 이런 서술 구도는 마치 이미 죽은 아키코의 유령이 살아있는 베카를 통해 산 자의 세계로 귀환하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베카의 서술 중 많은 부분들이 어렸을 적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며, 그 기억 속에 등장하는 엄마의 모습은 그리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요 심지어 억압의 대상이다. 그러나 억압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는 정신분석의 대명제처럼, 유령으로 다시 돌아온 엄마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베카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찾게 된다는 것이 『중군위안부』의 핵심 메시지이다.

본 작품의 서술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화법의 문제이다. 소설의 서사에는 대개 세 가지 화법이 사용된다. 직접발화와 간접발화 그리고 자유간접발화이다. 직접발화(화법)는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직접 되풀이하는 화법”²⁶⁾을 말한다. 상대방이 했던 말을 인용부호 안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다. 간접화법은 “남의 말을 인용할 때, 현재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따위를 고쳐서 말하는 화법”²⁷⁾이다. 예를 들어, <He said, “I feel sick now.”>는 전자의 예이고, <He said that he felt sick then.>은 후자의 예이다. 그런데 직접발화에서 인용표시를 없애고

26)표준국어대사전 <https://tinyurl.com/yzgowpbe>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27)표준국어대사전 <https://tinyurl.com/yh5lkgbz>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서술하면 자유직접발화가 된다.²⁸⁾ 예컨대, 위 문장을 자유직접발화로 표현하면, <He said, I feel sick now.>가 된다. 자유직접발화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혼동될 수 있는 모호한 효과를 낸다.²⁹⁾ 또한 “자유직접발화는 등장인물의 내적인 인식 작용 즉 의식적인 생각이나 무의식적인 생각,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연상 등을 포착할 수 있”다.³⁰⁾ 예컨대, 위안소를 탈출해서 선교원으로 찾아간 아키코를 본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는 호랑이가 기른 야생아같아라고 그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신체적으로는 인간이지만, 동물들의 언어로만 말할 수 있네.³¹⁾

『중군위안부』의 서술자들인 아키코와 베카의 서술에는 각각 두 개의 시점이 나타난다. 즉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부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이 베카의 현재이고,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은 과거 시제로 서술된다. 반면 아키코의 서술에서 현재는 베카가 한 살 무렵이던 시점이고, 그 이전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과거 시제로 서술한다. 그런데 “베카가 서술하는 장은 대화가 주로 직접발화로 서술되는 반면, 아키코가 서술하는 나머지 장은 인용표시가 전혀 없는 자유직접발화로 서술되어 있다”.³²⁾ 자유직접발화의 효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은 인덕의 유령이 아키코에게 비난과 요구를 동시에

28)이 외에도 자유간접발화가 있는데, 그것은 “문학 작품 속에서 인물의 생각이나 말이 서술자의 말과 겹쳐져 이중적 목소리로 나타나도록 하는 문장 기술 방식”을 가리킨다. 네이버국어사전 <https://tinyurl.com/yg463pk2>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29)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번역학연구』 17권 3호(2016), 230쪽.

30)권영민,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9), 154쪽.

31)자유직접발화의 효과 덕분에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가 불분명하며, 선교사들과 전혀 소통을 할 수 없고 마치 유령이 된 아키코가 산 자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낸다.

32)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229쪽.

들려주는 다음의 장면이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아무도 죽은 자에게 합당한 의식을 치러주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거기 누가 있어 우리를 위해 곡을 하고 우리의
죽음을 알렸지? 누가 엄 의식을 행해서 우리의 시신을 씻기고 입히고
우리의 머리를 빗겨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출상을 했지?
이제 인덕은 말했다. 우릴 인도할 자로는 죽은 자들밖에 없어. (38)

이 문맥을 자유직접발화로 표현함으로써, 아키코에게 하는 인덕의 말이 아키코의 내면의 목소리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즉, 어디까지가 인덕의 혼령이 하는 말이고, 어디부터가 아키코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목소리인지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아키코에게 인덕의 혼령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은 인덕의 시신에 대한 합당한 장례 예식을 치러주지 못했다는 아키코의 죄의식임을 감안해 보면, 이런 화법의 사용은 특별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번역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거의 모든 문장을 직접발화로 처리함으로써 원문이 지닌 심오한 효과를 놓치고 만다.

위 인용대목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kok’과 ‘yom’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들은 한국어 ‘엄’과 ‘곡’을 음차한 단어들로서, 저자는 영어에 없는 단어들을 통해서 서술자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사실 『중군위안부』 전체를 통해서 이런 유사한 어휘들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한미애에 따르면, 이런 어휘들도 세 가지 용례로 구분되는데, 예컨대, ‘연애’(yonae, love match 180), ‘중매’(chungmae, an arranged match 180)처럼 한국어를 음차해서 쓴 후 영어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경우와, “식량을 모아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준비할 때”(as we pooled rations to prepare bi bim kook soo for the afternoon meals, 99)에서와 같이, 문맥으로 음차표기의 의미를 일부 전달하는 경우와 “난 피부 아래에서 불타는 푸른 혈관을 볼 수 있다”(I can see the blue hyolgwang burning under its skin. 85)와 같이 아예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표기가 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예로는 “Abugi, Omoni, Aniya, aigu”(한미애 233) 등이 있는데, 다프나 주르(Dafna Zur)는 이런 방식의 한국어 사용이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무의미하며, 단지 서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³³⁾ 하지만 마이클 할러데이(Michael Halliday)는 이런 표현이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³⁴⁾ 이런 표현들은 “미국문화에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소수 민족으로서 정체성이나 이념을 언어어를 통해 표현하는” 예로 볼 수 있다.³⁵⁾

2.3 『중군위안부』에서 제시되는 혼종적 정체성

『중군위안부』를 둘러싸고 대체적인 비평적 합의가 존재한다. 본 작품에 대한 다양한 비평적 갈래가 있어 왔지만, 텍스트에 묘사된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비평적 이견이 거의 없는 편이다. 예를 들어 임신한 아키코를 유린하면서 내뱉는 일본군 군의관의 폭력적 언사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일본제국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모든 평자들이 동의한다.

의사는 그저 웃으며 내 위로 올라 타 다른 군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을 이용했다. 일이 끝난 후 그는 내 속옷으로 자신의 몸을 닦으며 칸막이를 열고 진찰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 이견 아직까지 상태가 좋구만. 그는 자신의 어깨 너머로 소리쳤다. 그는 내 질의 음순을 손가락으로 벌리면서 말했다. 보이지? 여전히 탄탄하고 촉촉해. (35)

33)Dafna Zur, “Covert Language Ideologies i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vailable at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742297.pdf(2002), p. 3.

34)Michael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p. 181.

35)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234쪽.

이 군의관은 임신한 아키코의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 막대기와 쥐약을 고르라고 하면서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들의 차이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는다.

그는 인종간의 진화적 차이에 대해서와 한 종족의 여성들은 그렇게 순결하고 다른 종족의 여자들은 그렇게도 음탕하게 만든 생물학적 기벽에 대해 떠들어 댔다. 실제로 거의 동물처럼 천박하지라고 그는 말했다. (22)

여기서 군의관은 자신의 망상을 과학적 논리로 그럴듯하게 포장한다. 요는 일본 여성과 조선 여성 사이에는 근본적인 도덕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터무니없는 논리이다. 이어지는 군의관의 말에는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을 정당화하고 식민지여성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하는 식민 논리가 짙게 배어 있다. “힘이 있는 한 수컷이 다른 수컷들을 궁지에 몰아놓고 암컷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연이 보장해 준 것은 종들에게는 참 다행이야. 그리고 암컷들은 항상 그 힘 있는 수컷에게 반응을 하지”(22) 라는 그의 발언에는 우생학에 바탕을 둔 사회진화론에 대한 믿음과 남성우월주의가 결합되어 있다. 힘이 센 수컷이 다른 수컷들을 배제하고 암컷들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그의 믿음은 ‘탈아입구’를 추구하면서 일본이 중심이 되는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이야말로 아시아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신념과 닿아 있다. 두 나라 여자들의 도덕성의 차이 운운하는 군의관의 논리는 일본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주도해서 위안부를 동원하면서도 일본인 여성이 아닌 식민지 여성(중국, 조선, 대만 등)을 주로 동원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런 이유에서 “일본군 종군위안부는 인종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결정체”이자³⁶⁾ “한 민족에 대한 집단 강간”(Lee So-Hee 170)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³⁷⁾

36)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477쪽.

37) So-Hee Lee, “A Study of First-Person Narrative in Comfort Woman: From a Perspective of Women Speaking and Writing”, 『영미문학 페미니즘』 10권 2호(2002), p. 170.

막대기로 아이를 강제 유산시킨 바로 그날 밤 아키코가 일본군 병영을 탈출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본제국주의의 거짓된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 행위이다.

아키코40으로 불렸던 조선 여성 인덕의 죽음 또한 식민지 여성을 짐승처럼 유린하고 버리는 일본제국주의의 폭력성을 충격적으로 증언해준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인덕은 위안부들을 침묵시키는 일본군에게 “나는 한국이며 여자다. 나는 살아 있고 열일곱 살이다. 나에게는 너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 나는 딸이며 누이다”(20)고 외치며 저항하다가 일본군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한다.

인덕은 밤새도록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부르고 가족의 계보를 열거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엄마가 전해준 요리법까지 떠들어대면서 소리를 질렀다. 새벽이 오기 바로 전 군인들은 그녀를 막사에서 끌어내 숲으로 데려갔다. 그리곤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군인들은 마치 구울 준비가 된 통돼지처럼 그녀를 꼬챙이로 질을 찔러 등에서 입까지 썬 채 데려왔다. [니들에게 주는] 교훈이야라고 말하며, 남은 우리에게 입 닥치라고 경고했다. (20-21)

이 장면은 아키코가 경험하거나 목격한 장 『중군위안부』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창래의 『제스처 인생』에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묘사된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군의 조직적으로 동원한 식민지 여성 위안부에 대한 ‘특수한’ 만행이 그들에게는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아키코를 포함한 위안부들에게 행해진 일본 제국주의의 조직적인 학대와 유린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목숨을 걸고 일본군 병영을 탈출한 후에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나중에 아키코의 남편이 되는 브래들리 목사와 그가 대변하는 미국 사회와 기독교가 일본 제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비평적 견해가 일치한다. 무엇보다도 작품의 곳곳에서 아키코는 브래들리와 (성)관계를 일본군의 성적 학대와 연결시킨다. 다음은 브래들리가 자신을 욕망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아키코의 반응이다.

그러나 나는 곧 그의 비밀, 결혼한 지 이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의 비밀을 알아내었다. 그것은 내가 위안소에서 배웠던 비밀이었다. 내리칸 그의 눈과, 강하고 빠른 그의 숨결이, 좁은 엉덩이와 신선한 가슴을 가진 반쯤 굶주린 소녀와 같은 내 몸에 손을 대고 싶은 듯이 옆구리에서 떨고 있는 그의 손을 보면서 나는 그 비밀을 알아보았다. 이것이 그의 죄이다. 그는 이것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여전히 그것을 부인한다. (95)

여기서 아키코는 신의 사랑과 용서 운운하는 브래들리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보고 있으며, 본질상 그것은 위안소에서 자신을 유린하고 학대하던 일본 군인들의 동기와 동일한 것임을 알아차린다. 물론 이것은 어린 나이에 경험한 끔찍하고 고통스런 성적 트라우마를 지닌 아키코가 보인 과잉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결혼식과 이어지는 결혼 생활 내내 보여주는 브래들리의 모습은 아키코가 추측한 것에서 과히 벗어나지 않는다. 목사의 아내가 되기 위한 절차로 대동강 물로 세례를 받은 아키코가 “공허하고, 좌절하고 버려진 듯한”(103) 느낌을 받은 것은 어쩌면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결혼 생활에 대한 계시인 셈이다. 서울로 와서 보낸 첫 날 밤에 아키코에게 하는 브래들리의 말을 통해 그의 속셈이 드러난다.

너에게는 무언가가 있어. 그렇게도 순진해 보이면서도 그렇게 능숙하게 행동하는 태도가 말이지. 그게 나로 하여금 너에 대해 불 타 오르게 만들어. 넌 처녀가 아니지, 그렇지?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는 달콤하게 속삭이며 애무하더니 내 몸에서 옷을 벗길 때 나를 움켜잡고 욕을 했다. 그가 나를 침대에 밀어놓고 내 몸에 올라타 허벅지 사이로 자신을 밀어 넣을 때 내 정신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다.

위안소에서 내 몸은 칸막이 방에 갇힌 채 수많은 남자들의 몸 아래서
꿈쩍도 못했다. 앞으로도 항상 그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것을 위안소의
경험으로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106)

아키코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에게 욕을 하며 그녀에게 ‘올라타는’
브래들리의 모습은 앞서 인용한 대목에서 “웃으며 내 위로 올라타”
그녀를 ‘이용한’ 일본군 군의관의 모습과 겹치지며, 자신을 창녀 취급하는
브래들리와의 첫날밤은 아키코에게 위안소에서 보낸 경험으로 재경험
(relive)된다. 비단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미국에 돌아온 브래들리가
아키코를 대하는 방식 역시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브래들리 목사 부부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한다. “나는 그가 ‘빛을
전파하며 신비한 동양에서의 경험’이라는 강의를 할 때 한복을 입고
옆에 서 있곤 했다”(107)는 아키코의 말에는 자신의 동양인 아내를
자신의 사명과 성취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브래들리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구재진은 “브래들리 목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오리엔탈리즘적인 억압이나 가부장적인 억압의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한다.³⁸⁾ 낮에는 정숙한 목사의 아내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다가 밤이 되면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땅은 머리, 크고
멍한 눈, 뽀로통해 금방 울 것 같은 입술”(107)을 원하는 브래들리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여성을 ‘천사와 창녀’를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둘 다를 충족시켜주는 여성을 갈망하는 남성들의 로망을 보여준다. 비록
위안소에서의 삶만큼 끔찍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키코는 남편과
보내는 미국생활에 대해 “원 안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107)
고 술회한다. 처음 미국에 건너왔을 때 미국의 풍부함과 부에 놀라던
아키코였지만(108), 그 감탄과 기대가 깨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어디를 가나 미국은 나에게 그렇게 보였다. 처음에 볼 때 그것은 반짝이며
꿈처럼 아름답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안을 걸어가면 갈수록 그 꿈은

38) 구재진, 「중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400쪽.

공허하고 거짓이며 빈곤하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얼굴도, 어떠한 자리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10)

미국에 대한 아키코의 부정적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시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간 요양원 방문 장면이다. 그곳에서 아키코는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의 냄새”(111)를 맡는다. 이 냄새야말로 아키코가 브래들리 목사와 그가 대변하는 미국적 삶의 방식과 종교(기독교)에 대해 지닌 부정적인 인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처럼 아키코가 미국(적 삶의 방식)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평자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아키코가 자신이 딸에게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물려주고 싶어 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있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살게 된 아키코에게 찾아온 인덕의 혼령이 “손가락을 내 입에 대더니 이것—이 아파트, 도시, 주, 그리고 미국—을 내 집으로 만들라고 명령”(113)하는 순간이 아키코에게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요양원을 찾아간 아키코가 거기서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들의 냄새’를 맡았다고 하면서, 이 냄새는 또한 “집 같은 냄새”(111)였다고 한 것이 설명된다. 비록 미국이라는 생소한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이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들’로 대변되는 삶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곳에 새롭게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아키코가 발견—그곳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겠다고 아키코가 결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아키코가 떠난 ‘집’—혹은 ‘고향’—이 그녀에게는 ‘버려짐과 고독과 귀신들’로 대변되는 공간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봐야 하는 장면이 바로, 한국을 떠나기 직전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은 아키코가 대동강변의 흙을 먹는 다음의 대목이다.

강가에서 떠나가기 전 나는 허리를 굽혀 땅을 만졌다. 손으로 진흙을 만지다가 재빨리 그것을 조금 입 속에 집어넣었다. 그 흙을 혀와 입천장에 문지르다가 이빨로 갈았다. 피처럼 금속성 맛이 나는 흙을 맛보며 내 나라가 항상 내 일부일 수 있도록 내 몸 속에 받아들이고 싶었다.

Before we left the river's edge, I reached down to touch the earth. I felt the mud under my hands, then quickly took a pinch into my mouth. I rubbed it across my tongue, the roof of my mouth, and I ground it between my teeth. I wanted to taste the earth, metallic as blood, take it into my body so that my country would always be a part of me. (104)

이 대목은 『중군위안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이며, 식민주의와 관련해서 작품을 논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이 언급하는 대목이다. 예컨대, 여기서 묘사되는 아키코의 행위에 대해 구재진은 “아키코의 향수의 대상이 어머니에 머물지 않고 모국을 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399)고 보며, 여기서 ‘내 나라’는 “역사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덧칠되지 않은 순수한 모국의 이미지”로 본다.³⁹⁾ 윤병우도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조국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되찾기 위한(reclaim) 절망적인 노력으로 대동강변의 흙을 삼”킨다고 해석한다.⁴⁰⁾ 권택영 역시 “언제나 고국의 흙을 몸 안에 지님으로써 한국에 뿌리내린다는 상징적 의식”으로 해석한다.⁴¹⁾

그러나 이 대목의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metallic as blood’라는 표현 때문이다. 영어에서 피와 관련해서 ‘metallic’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모습, 맛, 소리 등이) 금속성의”라는 의미와 나머지 하나는 “금속이 함유된”의 의미이다. 보통 금속성이라고 하면 ‘금속같이 기계적이고 날카로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이를 “metallic blood”로 해석을 하면, 금속성의 피 색깔 즉 ‘검붉은’의 의미로 읽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해석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뉘앙스와 연결된다. 설사 부정적인 뉘앙스를 제하고 읽더라도 아키코의

39)같은 논문, 399쪽.

40)Byung-Woo Yoon, “Difference and Identity: A Reading of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현대영어영문학』 54권 3호(2010). 232쪽.

41)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중군 위안부」, 225쪽.

행동을 조국과의 관계를 영원히 이어가고 싶은 염원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자신에게 행복보다는 불행의 기억, 기쁨과 감동 못지않은 슬픔과 배신, 무엇보다도 폭력과 상처-피와 직결되는 개념인-로 다가오는 조국과의 영원한 작별에 대한 보상으로 흠을 맛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조국과의 영원한 단절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조국에 보내는 일종의 작별 인사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장면은 감정적 동요 상태에서 아키코가 취한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제스처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하와이로 건너 온 후 딸 베카를 출산한 아키코가 이와 거의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베카를 임신했을 때 그녀는 “소년 선교원의 정원에서 검은 흠을 가져와 차를 끓”(113)여 마신다.

나는 흠을 마시며 자궁 안에 있던 그 애가 집 없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영양분을 그 애에게 공급했다.

그녀가 태어난 후 나는 같은 흠을 젓꼭지에 문지르고 그것을 딸의 입술에 갖다 댔다. 그 애가 처음 젓을 빨면서 나를 담은 흠과 소금과 젓을 맛보면서 내가 그 애의 집이고 앞으로 영원히 집이 되어줄 것임을 알 수 있도록.

(163)

소설에서 이 대목은 죽은 시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인덕의 혼령이 꿈에서 나타나는 장면 바로 다음에 위치한다. 사실 이 두 장면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병치시킴으로써 아키코의 행동을 인덕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 미국을 집으로 삼으라는 인덕의 명령에 대해, 흠으로 차를 끓여 마실 뿐 아니라 갓 태어난 딸에게 자신의 젓꼭지에 문은 흠을 맛봄으로써 영원한 고향을 만들어주려는 아키코의 행위는 대동강변에서 보여준 그녀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흠인지, 어디에서 가져온 흠인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밭을 딛고 서 있는 그 땅과 혼연일체가 되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자신의 아이가 갖기를 아키코가 바란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평자들이 놓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키코는 중군위안부로서 자신의 비밀을 딸에게 밝히면서 한국의 문화를 그녀가 받아들이고 인간의 영원한 고향을 일깨워준다”는 권택영의 해석은 과도하다.⁴²⁾ 그보다는 “아키코에게 고향은 과거 자신이 태어났던 국가인 한국이 아니”(207)며, 아키코가 “고향을 자신의 몸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생명력을 갖고 있다가 대동강변의 진흙을 먹고 미국으로 건너오며 시어머니 아파트의 먼지를 삼켜서 미국을 자신의 고향으로 만든다”는 이귀우의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⁴³⁾ 또한 아키코는 “베카가 한국과 미국적 정체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바”란다는 윤병우의 해석이 옳다.⁴⁴⁾ 이 점은 다음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난 그녀를 가장 순결하게 하얀 백합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피어난 이 아이가 덩굴손 같은 그녀 몸으로 내가 경계를 넘어가버리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한다. (116-117)

사실 아키코는 딸에게 백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딸아이 덕분에 자신이 완전히 유령의 세계로 사라져버리지 않고 현실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한국과 미국 어느 한 나라에 제한되는 정체성이 아니라 양자의 사이에서 양자의 경계를 초월하는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 이런 행동은 미국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라는 인덕의 명령에 대해 의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아키코의 결심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란 하와이는 혼혈(mixed race)이 표준인 사회”라는 켈러의 발언과도 연결된다.⁴⁵⁾ 실제의 켈러처럼, 작품 속 베카 역시 자신의 혼혈적 정체성과 혼종적 문화

42) 같은 논문, 226쪽.

43) 이귀우, 「중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207쪽.

44) Byung-Woo Yoon, “Difference and Identity”, p. 238.

45) Young-Oak Lee,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p. 146.

유산을 자랑스러워하며, 이에 근거한 당당하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것을 아키코는 바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점은, “수치스런 과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미국인 선교사와 결혼하여 하와이에 정착한다”는 권택영의 해석이다.⁴⁶⁾ “역사적 폭력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순효를 평생 수치심과 죄의식 속에 재감금한 것은 다름 아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적 공모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박미선의 독해 역시 같은 맥락이다.⁴⁷⁾ 그러나 평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키코는 종군위안부 경험이 수치스러워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게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향에서의 삶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핏빛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기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물론 아키코는 종군위안부 시절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그녀의 트라우마는 일차적으로 인덕에 대한 죄의식에서 기인한 것이었지, 종군위안부 경험에 대한 수치감이나 죄의식 따위가 아니다. 오히려 아키코의 과거를 수치스러워한 것은 그의 남편이었다. 이는 베카의 회상을 통해 드러난다.

“조용히 해!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떡해? 소년들과 형제들이? 베카가 당신 말을 들으면 어떡해? 자신의 엄마가 창녀였다는 걸 알면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 봤어?” (...)
당신의 침묵으로 그 수치로부터 우리 딸을 보호해주길 부탁해. (196)

결국 베카에게 남겨진 선택은, 침묵을 통해 엄마를 수치스런 창녀로 만들 것인지, 엄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함으로써 그녀를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을 고발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준 위로자로 만들 것인지이다. 동시에 베카의 선택은 자신을 새로운 샤먼으로 부르는 엄마의 부름

46)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종군 위안부」, 221쪽.

47) 박미선, 「초국가적 문화서사와 재현의 정치」, 『여/성이론』 18권(2008), 153쪽.

(calling)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작품의 마지막 대목에서 베카가 꾸는 꿈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엄마의 유해를 강에 뿌린 그날 밤 베카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오랜 동안 해엄을 친 베카가 너무 피곤해서 더 이상 해엄을 칠 수 없다고 느낄 때 아래에서 자신의 다리를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고 돌아본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엄마였다. 나는 고향을 질렀다. 깊은 물에 빠져 익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을 벌렸지만 오히려 나는 깨끗하고 푸른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나는 바다가 아니라 하늘로 더 높이높이 해엄치고 있었다. 자유로운 빛과 공기로 어질어질해진 나는 가느다란 푸른 빛 줄기 하나가 땅 아래로 빙빙 돌며 내려가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서 나는 엄마가 심어놓은 작은 씨앗 주위에 꼭 웅크린 채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213)

이 장면에 대해, 이귀우는 “어머니가 심어놓은 씨앗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베카에게 안겨 있다는 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베카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며 이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베카의 공수에 의해 독자들에게 아키코의 목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05)고 해석한다. 이는 베카가 어머니의 바람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계에서, 인덕이자 아키코이자 또 다른 이름 없는 중군위안부로서, “내 안에 있는 타자를 인정함으로써 다중적 정체성을 수용하고 다른 타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 저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암시한다.⁴⁸⁾ “[중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미래에 그것의 재연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는 켈러의 말처럼,⁴⁹⁾ 아키코가 베카를 “애도 받지 못한 중군위안부들을 위한 애도”의 행렬을 이끄는 샤먼으로 호명하는 것은 또 다른 아키코들이 생겨나는

48) 신혜정, 「노라 옥자 켈러의 『중군 위안부』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영어영문학연구』 61권 3호(2019), 176쪽.

49) So-Hee Lee, “A Study of First-Person Narrative in Comfort Woman”, p. 171.

것을 막으라는 명령이다.⁵⁰⁾

III. 결론

『중군위안부』는 1997년 출간된 이후로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 왔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몇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아키코로 대표되는 중군위안부의 몸을 둘러싼 식민주의와 식민담론에 대한 연구와, 아키코의 트라우마에 주목하는 정신분석학적 연구, 아키코와 인덕, 베카로 이어지는 여성적 연대에 주목하는 페미니즘 연구, 지역과 경계를 넘어서는 혼종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산문학적 연구, 그리고 아키코와 베카의 서술이 교호적으로 진행되는 독특한 서술구조와 서술기법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이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중군위안부』를 어느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작품의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오독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아키코에게 있어서 식민지 조국이 어떤 위상을 갖는지와 그녀가 베카에게 원했던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규명하지 않은 채, 아키코의 선택을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로의 회귀로 오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키코와 베카가 교호적으로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서술하는 『중군위안부』의 서술형식 자체가 곧 중군위안부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전승하는 가운데 침묵당한 희생자의 목소리를 복원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먼저 저자가 보여주는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하는 어휘 사용과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전통적 소설 형식으로 담아낼 수 없는 아키코의 분열된 의식과 파편화된 기억을 독자들이 수용하도록 준비시킨다. 아울러 자유직접발화라는 아키코의 독특한 서술양식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는 아키코의 위치를 절묘하게 드러내주는 기법이자, 트라우마라는 말해질 수 없는

50)Sungran Cho, “The Power of Language”, p. 42.

것을 말해야 하는 위안부 여성들의 분열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장치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종군위안부』에 드러나는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아키코의 저항을 민족주의로의 회귀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딸이 한국도 미국도 아닌, 두 문화의 경계에서, 두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 것임을 살펴보았다. 또한 베카의 꿈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샤먼이 되기를 호명하는 엄마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자 결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 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yhshin@hansung.ac.kr

주제어(Key Words):

『종군위안부』(Comfort Woman), 교호적 서술(antiphonal narration), 자유직접발화(free direct speech), 트라우마(trauma), 혼종적 정체성(hybrid identity)

투고일: 2021.04.19, 심사일: 2021.05.03, 게재확정일: 2021.05.03.

<국문초록>

노라 켈러의 『종군위안부』 연구: 교호적 서술과
자유직접화법을 통한 혼종적 정체성의 전유

신영헌

『종군위안부』는 1997년 출간된 이후로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독특한 서술형식이나 주요 주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어 온 결과, 『종군위안부』의 예술적 성취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종군위안부』의 형식적 특징, 그 중에서도 서술기법을 살펴본 후 이런 특징이 주제와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을 살펴본다. 먼저 일상적인 어법을 파괴하는 어휘 사용과 자유로운 시점의 이동을 통해 저자는 단선적이지 않고 범상치 않은 『종군위안부』의 서사를 독자가 따라오도록 준비시킨다. 특히 아키코의 서술을 특징짓는 자유직접화법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그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주면서,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위안부 여성들의 분열된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아키코와 베카가 교호적으로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서술하는 『종군위안부』의 서술형식은 곧 종군위안부라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전승하는 가운데 침묵당한 희생자의 목소리를 복원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작품의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종군위안부』는 아키코의 트라우마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비판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민족주의로의 회귀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키코는 자신의 딸이 한국도 미국도 아닌, 두 문화의 경계에서, 두 문화를 아우르는 새로운 혼종적 정체성을 갖기를 바란다. 작품의 말미에 나타나는 베카의 꿈은 엄마의 호명에 순응하겠다는 베카의 응답이자 결심으로 볼 수 있다.

<Abstract>

A Study on *Comfort Woman*: Hybrid Identity Appropriated through Antiphonal Narration and Free Direct Speech

Shin, Younghun

This paper aims to analyze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by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narrative technique and its theme. Keller's unique use of words and points of view allows readers to accommodate Akiko's nonlinear and incomprehensible memory. Akiko's free direct speech enables her to depict her traumatic experiences at the Japanese "comfort stations" vividly. It is also efficient in showing the divided consciousness of the victims as they describe their unspeakable experiences. The antiphonal narrative structure where Akiko and her daughter, Beccah alternately tells their respective stories is deftly combined with its theme, hybrid identity appropriated through solidarity. In the end, Beccah understands her mother fully and symbolically plays the role of a shaman, restoring silenced voices of the victims and healing their wounds and pains. Akiko wanted Beccah to acquire a hybrid identity, crossing over the border and rooting her life to the earth. Beccah's dream described at the last scene shows she is willing to abide by her mother's testimony and live as a transnational subject who mediates between the dead and the living.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권영민,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2009).

이명섭, 『세계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조가빈, 『일본군 ‘위안부’제도 긍정과 부정의 정치적 쟁점: 일본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Auerbach, Erich, *Mimesis*, Willard R. Trask tr. (New Jersey: Princeton UP, 1968).

Halliday, Michael A. K.,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Keller, Nora Okja, 박은미 역, 『종군위안부』 (서울: 밀알, 2008).

_____, *Comfort Woman* (New York: Penguin, 1997).

2. 논문

구은숙, 「여성의 몸, 국가 권력과 식민주의/민족주의: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 『영어영문학』, 47권 2호(2001).

구재진, 「종군위안부의 역사 전유와 향수」, 『한국현대문학연구』, 21권(2007).

권택영, 「기억의 방식과 켈러의 종군 위안부」, 『호손과미국소설 연구』, 12권 1호(2005).

길혜민, 「일본군 위안부의 유행적 삶과 애도의 가능성: 김숨의 한 명과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3권(2017).

- 변화영,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고통과 기억의 의미」, 『비평문학』, 51권(2014).
- 신혜정,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 『영어영문학연구』, 61권 3호(2019).
- 이귀우, 「종군위안부에 나타난 샤머니즘과 두 일인칭 서사의 구조」, 『외국문학연구』, 31권(2008).
- 이유혁, 「이동하는 또는 고통스러운 기억들: 한국인 종군위안부의 트라우마의 초국가적 이동, 그것의 문학적 재현 그리고 식민의 망각에 관하여」, 『인문연구』, 64권(2012).
- 진순희, 「강요된 침묵에 저항하는 양태-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와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호(2005).
- 차희정, 「한국계 미국작가들의 위안부 문제 형상화 방식-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와 이창래의 『제스처 라이프』를 중심으로」, 『문학들』, 48권(2017).
- 최혜실, 「식민자/피식민자, 남성/여성, 부자/빈자: 노라 옥자 켈러의 『종군위안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7권(2002).
- 한미애,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번역학연구』, 17권 3호(2016).
- Cho, Sungran, “The Power of Language: Trauma, Silence, and the Performative Speech Act: Reading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Speaking Subjectivity of the Mother”,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5-3(2003).
- Lee, Young-Oak, “Nora Okja Keller and the Silenced Woman: An Interview”, *MELUS*, 28-4(2003).
- Lee, So-Hee, “A Study of First-Person Narrative in Comfort Woman: From a Perspective of Women Speaking and Writing”, 『영미문학 페미니즘』, 10권 2호(2002).
- Yoon, Byung-Woo, “Difference and Identity: A Reading of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현대영어영문학』, 54권 3호(2010).

Schultermandl, Silvia, “Writing Rape, Trauma, and Transnationality onto the Female Body: Matrilineal Em-body-ment in Nora Okja Keller’s *Comfort Woman*”, *Meridians: Feminism, Race, Transnationalism*, 7-2(2007).

Zur, Dafna, “Covert Language Ideologies i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vailable at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742297.pdf(2002).

3. 웹사이트

<https://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tinyurl.com/yzgowpbe>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tinyurl.com/yh5lkgbz> (검색일: 2021년 4월 13일)

<https://tinyurl.com/yg463pk2> (검색일: 2021년 4월 13일)